

JAPANESE DOCUMENTS CENTER NEWSLET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Japanese Documents Center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자료센터 소식지 제17호 2003년 4월 1일 발행인 김용덕

▶일본연구동향

近代日本の 公論形成에 대한 연구동향

— 東京大學「公論形成研究會」의 경과와 성과

朴 薰(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1. 公論形成연구의 계기

1989년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1962)가 영역되면서, 미국의 중국사 학계에서는 근대중국에서 ‘公共圈’(Public sphere: Öffentlichkeit), 또는 시민사회를 발견할 수 있는냐는 문제가 주요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었다(*Modern China* 16-3, 1990; *Modern China* 19-2, 1993). 이는 현대 중국 사회의 민주화라는 현재적 관심과도 연관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국학계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받아 90년대 초반 시민사회론이 한동안 論題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이미 안정적이고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했다고 여겨지는 일본의 경우, 이러한 논의에 대한 현재적 필요성이 덜한 탓인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메이지유신을 재구성하려는 역사학계의 움직임 속에서 메이지유신을 公論形成의 과정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 동경대학「公論形成研究會」(이하「연구회」로 약칭)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2000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계속된「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최근 근대일본의 공론형성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경향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회」에는 일본뿐 아니라, 중국·한국·베

트남에서의 공론형성 과정에 대한 전문가도 다수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했는데, 지면이 허락하는 한에서 일본이외의 연구도 간단히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연구회」의 경과와 참가멤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연구회」는 동경대학의 명치유신 전공자인 三谷博 교수의 발의로 2000년 7월 23일 제1회 세미나를 갖고 그 후 2002년 8월까지 총 6회의 모임을 가졌다. 「연구회」는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공론형성의 역사를 비교 검토한다는 취지로 발족한 만큼 중국·한국·베트남 전문가의 논문도 발표되었다. 이하「연구회」에 참가한 정규멤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전공자

三谷博(東京大學 교수: 명치유신사 전공)

黒住眞(동경대학 교수: 徳川時代 儒教思想)

張寅性(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근대동아시아 국제정치사상)

Andrew Gordon(Harvard 대학 교수: 일본근대사)

Kyuhyun Kim(Harvard 대학 박사: 明治期政治史)

(2) 한국전공자

金容植(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선시대·근대한국의 공론정치 전공)

月脚達夫(동경외국어대학 교수: 한국근대사)

磯崎典世(學習院대학 교수: 한국 현대정치)

(3) 중국전공자

木賴壽(東京大學 교수: 중국근대사)

村田雄二郎(東京大學 교수: 중국사상사)

陶徳民(關西大學 교수)

季衛東(神戸大學: 중국의 법체계)

(4) 베트남전공자

岩月純一(一橋大學 전임강사: 베트남역사)

2. 近代日本の 公論形成에 대하여

이하에서는 「연구회」에서 발표된 근대일본에 관한 주요논문의 개요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일본에서의 公議시스템의 형성(三谷博)

공의시스템이란 국가에 관련된 문제를, 정부의 외부에 소속하는 공민이 자유롭게 토의하고, 그것을 정부가 존중하여 수용하는 시스템이다. 일본근대사는 일면에서는 공의에 의해 구축되고, 공의가 관습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명치정부의 수립은 단순한 '王政復古'가 아니라 '王政・公議' 체제의 성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명치정부는 천황의 독재체제도 아니었고, 번벌・관료의 전제도 아니었다. 이렇게 볼 때 1930년대의 군국주의는 하나의 일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착목해야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행위의 실태이다. 즉 '공공'의 문제에 대해, 대등한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토의'하는 습관이 있는가, 그것이 정당한 결정방식이라는 인식의 공유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정치시스템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쌍방에서 토의관습이 존재하는가, 정부에 의한 민간여론의 존중이 존재하는가, 민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자유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근세일본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공식 커뮤니케이션으로서 請願・上書・諮問・目安箱 등이 있었다. 특히 徳島藩의 藍專賣制 도입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정책에서는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했다. 한편 민간차원에서는 지식인 사이의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했다. 에도시대에 전국에 걸쳐 분포했던 私塾과 전국적인 遍歴遊學시스템은 지식인간의 전국적인 교류를 가능케 했고, 사숙에서의 토의는 신분・지역차에 구애되지 않아, 자유롭고 대등한 토의가 행해졌다. 또 서민상층의 경우 원격지 거래, 취미의 공유, 여행의 활성화, 遠隔地親族化 등으로 지역폐쇄성을 탈피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 막말기가 되면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먼저 정부의 이니셔티브로부터 시작된다. 水戸藩의 '議論政治'에서 보여지듯 上書・直書, 또는 對面을 통한 藩主・家臣間の 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고, 이를 통해 하급가신단의 발언력이 증대한다. 중앙정치에서도 '일본' 정치에 참가하려는 大名과 지식인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이것은 '天下의 公論'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공론사회를 탄생시킨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1858년 安政의 政變이었다. 대대명・지식인・공가등 정치주체가 분출하는 가운데서 엘리트가 분열함으로써, 패배한 측은 대항적 엘리트로 전화하고 정부밖에서 정치의견을 표명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천하의 공론' '公議輿論'이라고 정당화했다.

명치정부의 성립으로 '왕정공의' 체제가 출발하는데, 이 체제는 일본전국으로부터 인재를 동원하고(徴士・貢士), 左院 등 '討議' 전문기관을 설치했으며, 『太政官日誌』를 간행하여, 정부업무를 공개했다. 한편 명치기의 공론공간의 생성 역시 엘리트의 분열로 이뤄졌다. 즉 왕정복고로 인해 발생한 徳川幕府의 遺臣들의 이탈, 戊辰전쟁의 상흔을 회복하기 위한 탄압과 회유등의 과정속에서 공론공간은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 공론공간은 신문이라고 하는 미디어, 연설이라는 장과 곧바로 결합해 정부를 강력히 견제했다. 막말의 공론이 몇사람의 '회의', 또는 1 대 1의 의견교환이라는 폐쇄성을 가진 데 비해 명치의 공론은 1 대 불특정다수라는 공개성을 특징으로 한다.

(2) 「명치 초기 국민공공권에서의 '정치스캔들'의 생성과 국가이념의 확립」(Kyu Hyun Kim)

어떤 추문의 내용을 '정치스캔들'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공론'이 창출되어 교환・전달되는 공간이 없어서는 안된다. 이런 면에서 정치스캔들

의 성립을 공공권의 존재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삼을 수 있다. 즉 정치스캔들이라는 사태는 국가기구가 독점한 정보공간을 공론사회가 개방시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문제를 명치 14년의 정변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중앙집권국가의 형성과 함께 재정에 관련한 汚職이나 疑獄이 발생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정부내부에서의 권력투쟁으로 끝난다. 예를 들면 명치정부 내에서 長州閥의 汚職을 규탄한 江藤新平은 끝내 신문은 이용하지 않았다. 국가재정문제가 공개된 최초의 예는 1872년 井上馨이 大藏大輔를 사임하면서 『日新眞事誌』에 이 문제를 폭로한 것이고, 이를 계기로 후임인 大常重信은 예산을 공개하기에 이른다. 이 사이 일본의 신문은 급격한 발전을 보여 특히 1877년 서남전쟁에 대한 사실보도경쟁을 통해 비약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치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정론신문이 크게 발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명치 14년의 ‘정치스캔들’이 터진 것이다. 공론사회는 북해도개척사 관유물불하사건을 정부의 ‘사회’에 대한 간섭으로 비판하고, 국회에 의한 경제정책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즉 공론사회는 정치가의 도덕성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명치국가 시스템의 결함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공공권은 계속 성장하고, 그에 따라 ‘정치스캔들’도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大正政變’도 3년 동안 계속된 ‘정치스캔들’의 연속으로 파악하는 시각도 가능할 것이다.

(3) 「근대일본의 공론형성과 동아시아-시각과 방법」(張寅性)

일본공론형성에 대한 연구는 자유주의 모델(鈴木健二, 三谷博, 大沼保昭, 井上達夫, 花田達朗)과 비자유주의모델(Mary Elizabeth Berry, 佐藤卓己)로 나눌 수 있다. 자유주의모델은 막말유신을 「公議」의 도입과 제도화로 보거나(三谷博), 자유민권운동과정에서의 인권, 자유의 탄생에 주목한다(牧原憲夫, 升味準之輔, 色川大吉). 또 「시민사회」=「공공권」으로 파악하고, 이 「공공권」과 매스미디어의 관계를 매스미디어와 내셔널리즘과 자본주의의 상호관계 속에서 고찰한다(鈴木健二).

한편 비자유주의모델은 일본의 「공공권」은 인민주

권이 주장되는 공간이 아니라, 리더십이 비판에 의하여 검증되고 규율되는 공간이라고 본다. 즉 戰前の 일본의 공공권을 인민주권보다 리더십에 연결시켜 일본정치의 내적 논리를 포착하고자 한다(Mary Elizabeth Berry). 한편 공공적 합의는 일부교양인의 비판적 토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대중에 열린 진 〈신화〉의 공감에 의해서도 얻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매스미디어나 정부의 홍보활동에 의해 비판적 기능이 상실된 공론의 세계, 상징조작에 의해 대중의 공감을 만들어내어 공공성의 이름으로 권력을 정당화하는 사회, 즉 파시스트적 공공성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필자가 보기에 이 두 모델은 주로 전자가 명치기를, 후자가 30년대의 군국주의기를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나, 그 全時期를 관통하는 모델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근대일본의 공공권은 시민적 공공권, 국민적 공공권, 파시스트적 공공권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시민적 공공권은 인권과 자유를 지향하는 자율적 토론의 장으로서 신문, 연설, 지식인단체, 민권운동가들에 의해 담보되었다. 이것은 막연한 의식상태에 있는 국민을 토론과 설득에 의해 정치의 세계로 끌어들여 정치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적 공공권은 타율적 규제의 장인 군대, 매스미디어, 학교, 관변단체를 기반으로 하면서, 사회에 대한 국가의 간여가 심화되어 사회와 국가가 밀착한 형태의 공공권이다. 이것이 더욱 심화된 것이 파시스트적 공공권이다. 이에는 정치적 축제, 행렬, 옥외집회 등 하버마스의 「문예공공권」과는 다른 「가두공공권」이 형성된다. 「가두공공권」은 축제·데모행진 등으로 광장에 모인 군중이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는 공간(바스티유감옥습격, 나치당의 오테온광장집회)으로 대중의 정치참가는 이성적 토의에 의한 시민적 공공성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민의 자율성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고 국권을 지향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다. 이 중 어떤 것이 부상하는가는 국제적 계기와 이에 상응하는 국내적 계기에 의한 다.

한편 이밖에 근대일본에서 아시아주의, 대동아공영권 등의 추진 등으로 좌절했지만, 「국제공공권」, 「국제공론」이라는 부분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 鈴木健二, 『ナショナルリズムとメディア』, 岩波書店, 1997.
- 三谷博, 『明治維新とナショナルリズム』, 山川出版社, 1997.
- 花田達朗, 『公共圏という名の社會空間』, 木鐸社, 1996.
- _____, 『メディアと公共圏のポリディクス』, 東京大學出版會, 1999.
- Mary Elizabeth Berry, "Public Life in Authoritarian Japan", *Daedalus* 127-3, 1998.
- 佐藤卓己, 「ファシスト의 公共性—公共性의 非自由主義モデル」井上俊他編『民族・國家・エスニシティ』(現代社會學 24), 岩波書店, 1996.

3. 토론과 쟁점

이상의 논문들에 대해서 활발한 토의들이 전개되었는데, 특히 전공지역에 따라 또는 연구자의 국적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이 등이 나타나 흥미로웠다. 2년간 진행된 「연구회」에서 나타난 쟁점들을 일일이 소개할 여유는 없지만, 이상의 논문들에 대해 표명된 주요한 쟁점 등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三谷博의 발표에 대해서

Q: 水戸藩의 '議論政治'가 藩政의 일례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시스템에 영향을 주었는가.

A: 이에 대해 三谷은 水戸는 '전염' 효과가 있었다면서, 藤田東湖의 영향력은 전국적이었다고 했다. 한편 水戸學의 영향은 사상 내용이상으로 '討議'라는 커뮤니케이션의 스타일 면에서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서는 朴薰이 水戸에서 보여지는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長州藩이나 公家세계에서도 보여지며, 아마도 주요지역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보여진다고 첨언했다.

Q: 水戸藩같은 '議論政治'와 비슷한 시스템은 조선이나 청조에서도 이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 곳에서의 '議論政治'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나.

A: 이에 대해 金容植은 조선에서는 14세기에 공론이 등장하나, 15세기 이후에는 사람의 조광조·이울곡에 의해 중요한 개념으로 정착한다. 그러나 19세기

에는 세도정치하에서 공론의 의미는 변화·쇠퇴하였다. 대한제국기로 되면, 역으로 독립협회등이 서양을 모델로 한 공론개념을 도입한다.

▶KyuHyun Kim의 발표에 대해서

Q: 국민공공권이란 무엇인가.

A: 하버마스가 말하는 부르조아공공권, 즉 civil society에 대하여, 유신-명치기의 일본에서는 국민국가의 틀에서 공공권이 성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national public sphere이다. 당시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볼 때 국민국가형성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대해 三谷은 그런 개념이라면 일본이외의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다면 굳이 national을 앞에 붙일 필요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Q: 山東京傳은 貸本屋을 'お媒人', 즉 mediator라고 부른 것으로 유명하다. 즉 에도후기의 인기작가는 매스미디어의 중요성, 영향력을 숙지하고 있었던 만큼 化政期에는 이미 그런 의미에서의 讀書公衆, 공론세계가 성숙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연속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발표자가 중시하는 명치초기의 '정치스캔들'과 공론사회라는 것을 이것과 구별시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A: 근대국가기구의 건설이 그 단절면이다. 근대국가의 건설에 의해 intensive로부터 extensive에로라는 변화가 생겼다.

Q: 民營紙·官報·黨報의 차이는 어떠한가. 중국에서는 黨報가 중심적인데.

A: 이에 대해서는 三谷博이 일본에서는 처음에는 정부의 관보인 태정관일지가 나오나, 직후에 민간상업지가 탄생하여, 이것이 주류를 점하게 되는 것이 일본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 상업신문이 井上馨의 日新眞事誌에의 투서를 계기로 정치토의의 장으로 등장하게 되어 이어 민선의원설립논쟁으로 政體의 논쟁을 시작한다. 이어 몇단계를 거쳐 명치 14년에 공론을 주도하여 정변을 유발시키는 데 이르게 된다.

▶張寅性的 발표에 대하여

Q: 근대일본에서는 국가가 사회를 압도했다는 이해는 1930년대의 일본에는 타당할지 모르나, 명치기는 다르다. 초기의회기에 선출된 중의원의원의 과반수가 民黨이었던 점으로부터 봐도 국가와 별도의

사회는 명백히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시민적 공공권의 좌절이라는 이해에는 납득할 수 없다. 명치임 현재는 정당·관료가 번갈아가며 내각을 조직하는 관행을 실현시켰고, 권력의 독점은 없어졌으며 미디어에 의한 격렬한 정부비판도 존재했다. 물론 그것은 1930년대에는 붕괴했으나, 처음부터 미래의 좌절이 운명지워졌던 것은 아니다.

A: 국가와 사회사이의 문제라는 이해에 관계된 것이나, 일본의 경우는 서구와 달리 국가가 보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또 자유민권가의 '轉向'은 시민적 공공성의 약화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Q: 보통선거가 실현된 1920년대까지는 '민권'의 이념은 살아있었던 것이 아닌가.

A: 1920년대의 그것은 국제적 분위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이상 소개한 논문이외에도 전근대일본의 공과 私의 개념을 천착한 「일본에서의 공공형성의 구조와 논리 — 諸研究의 회고로부터」(黒住眞), 또 '交通'이라는 말이 갖는 공공성의 의미를 분석하고, 명치기의 '江湖'라는 말의 등장과 확산이 공론형성에 갖는 의미를 지적한 「交通의 自由, 思想의 運輸」(東島誠)라는 논문이 제출되었다.

4. 일본 이외의 동아시아 공론형성에 대하여

冒頭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연구회」는 한국·일본·중국·베트남 등 동아시아 주요국가들의 공론형성의 역사를 비교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만큼 일본이외의 국가에 대한 논문도 다수 제출되었다. 지면관계상 상세히 소개할 수는 없으므로 근대한국에 관련된 논문 2편을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한국에서의 근대적 공공영역의 기원과 전개」(김용직)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a. 한국의 근대적 공공영역은 1890년대 말에 개화파와 신흥엘리트의 활동을 중심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신흥엘리트들은 상업활동과 같은 경제활동을 통한 독자의 계급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대체로 교육과 관료행정 및 언론활동에 투신하게 된다.

b. 한국의 근대적 공공영역은 1890년대 후반에 주

로 근대적인 대중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인 신문의 도입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그 원형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후 정치적 탄압과 불안정성에 의해 급격히 약화되었다.

c. 한국의 근대적 공공영역은 비판적 공론을 제기할 수 있었던 시기에는 독립협회와 같은 정치운동단체의 지원을 얻어, 왕권을 견제할 수 있었지만, 그 시기는 짧았고 정치권력에 의해 쉽게 약화되었다.

d. 한국의 근대적 공공영역은 그 초기부터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었다.

e. 한국의 근대적 공공영역에는 주요신문의 비판적 공론활동이 가장 중요했다. 초기에는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이, 중기에는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이 중요했고, 1904년 이후에는 대한매일신보가 민족주의적, 또는 애국주의적 공론을 주도했다.

f. 한국의 근대적 공공영역은 시민계급이 부재했기 때문에 절대적 전제권력을 부인하거나, 도전하기보다는 외세를 비판·견제하고 국가의 기본을 확립하려는 자강론적 공론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g. 한국의 근대적 공공영역의 몰락에는 러시아, 일본 등 외세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

h. 고종의 언론정책은 독립협회의 해체 이후, 대체로 고압적이었고 민간언론은 정치적 구심점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약화되었으나, 외압이 강해질 때마다 다시 활성화됐다. 그러나 식민지화와 함께 폐쇄되어 버렸다.

「근대조선의 '공공권」(月脚達彦)은 근대조선의 공공영역과 관련하여,

a. 19세기 후반에 재지사족과 京畿學人이 분화·대립하고 있었던 점

b. 양쪽 다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권에서 소외되어, 비판세력으로 될 요소를 갖고 있었던 점

c. 京畿學人이 당파와 신분을 초월하여 수평적인 대화관계를 창출했던 점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에서의 재판과 공론」(季衛東)이라는 논문이 제출되었는데, 중국의 전통적인 재판이라는 공간에서 공공권의 형성을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이 밖에 베트남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의 공론시스템형성의 문제점」(岩月純一)이라는 논문이 제출되었다.

이상 주요논문들의 내용과 쟁점 등을 소개했지만, 「연구회」에서는 초기에 ‘公論’, ‘公共圈’, ‘市民社會’ 등의 개념에 대한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혼선을 초래했다. 또 동아시아의 공론형성을 연구할 때에 하버마스의 개념들이 과연 얼마나 유용한

가에 대한 의문도 줄곧 제기되었다. 「연구회」가 겪었던 이러한 난관들은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주의깊은 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일본자료센터 행사 정보

제3차 일본 사회과 교육자 초청연수 실시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일본자료센터는 한국국제 교류재단과 공동으로 제3차 일본 사회과 교육자 초청 연수를 실시하였다. 2002년으로 세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일본 각지에서 선발된 중 고교 교사 2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14박 15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본 센터는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크게 강의, 현장교육, 지방답사로 기획하였고, 이와 같은 틀은 기본적으로 예년과 동일하였다. 다만 작년의 예년의 초청연수와 다른 점은 첫째 한국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10월로 중순으로 연수시기를 앞당긴 점, 둘째 연수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1) 한국어 강좌를 보강하고 관심분야의 강의를 개설한 점, (2) 김치만들기, 한국전통의상 입어보기, 안동하회별신굿감상 등 일부 한국의 문화를 더욱 가까이 체험할 있는 현장실습을 추가한 점, (3) 자유연수시간을 서울과 부산에서 갖은 점, (4) 지방일정에 감은사지와 기림사, 합천해인사를 추가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감은사지와 해인사를 방문한 일본인교사들의 반응은 대단하였다.



2년 간의 행사운영경험과 한국중등교사 일본초청 행사에 참가하여 느낀 것을 바탕으로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행사가 진행되었고, 참가자에 대하여 세심한 곳까지 배려하고자 노력하였다. 무조건적인 칭찬과 듣기 좋은 말보다는 날카로운 지적과 조언이 앞으로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설문작성시 참가자에게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린 결과, 예년과 마찬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다소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참가자 25명의 요구에 모두 대응할 수는 없지만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강 의

(강의내용은 본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 제	시 간	강 의 명	강 사(소 속)
기조강연	1시간 30분	한일상호인식의 과거와 현재	김용덕 교수 (서울대 동양사학과)
한 글	3시간	한국어와 문자	신혜원 강사 (서울대 어학연구소)
교 육	2시간	사회과교육의 현황	현명철 박사 (홍익대 강사)
한일문화비교	2시간	서론적 여러 가지 이야기	정대성 교수 (서울대 사범대)
전통문화	2시간	한국의 전통문화의 특징	황준연 교수 (서울대 국악과)
생 활	2시간	한국의 일상생활과 국민성	이지원 박사 (서울대 강사)
역 사	2시간	근대한국의 역사적 변화 · 전개	김익한 교수 (명지대 기록관리학대학원)



▶ 행사일정표

日 時		行 程	場 所
10/8 (火)	14:15 17:00 18:00	인천국제항공도착 숙소도착 석식 및 오리엔테이션	서울대 호암관 (02)880-6798
10/9 (水)	09:30~10:20 10:30~12:00 12:00~13:00 13:00~16:00 16:00~18:00 18:00	개회식 강의: 기조강연(김용덕) 중식(호암관) 강의: 한국어회화(신혜원) 서울대 박물관 · 규장각 환영만찬회(호암관)	마로니에(호암관 2F) 서울대국제지역원장주최
10/10 (木)	09: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7:00 18:00~19:00 19:30	강의: 교육(현명철) 이동 (서울대→대학로) 중식(기조암) 서울사범대 부설여자중학교 석식(63빌딩) 한강유람(여의도→잠실)	동백(호암관 별관)
10/11 (金)	09:00~11:00 11:30~12:00 12:00~18:00	강의: 문화(정대성) 이동 (서울대→을지로) 판문점	동백(호암관 별관) *중식포함
10/12 (土)	09: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30~16:30 17:00~19:00 20:00~21:10	강의: 한국전통공연관람 이동 (서울대→인사동) 중식(인사로) 인사동거리 비원 석식(한일관) 난타공연관람	서울대 국악합주실 난타극장
10/13 (日)		자유연수	
10/14 (月)	09:00~11:00 11:30~13:30 13:30~14:30 14:30~15:30 16:00~19:00	강의: 일상생활(이지원) 강의: 역사(김익한) 중식(서울대 학생식당) 이동 (서울대→예지원) 한국문화체험(김치만들기/한복입기)	동백(호암관 별관)
10/15 (火)	09:00 10:30~13:00 13:00~14:30 14:30~17:30 18:50	이동 (서울→천안) 독립기념관 이동 (천안→부여) 국립부여박물관, 능산리고분군 호텔도착 석식(유성호텔)	*이동중 중식 대전유성호텔 (042)822-0811

日 時		行 程	場 所
10/16 (水)	09:00 12:00~13:00 13:00~17:30 18:00~19:00 19:30	조식 이동 (부여→경주) 중식(구로쌈밥) 국립경주박물관, 안압지, 천마총, 첨성대, 최씨고택 석식(수석가든) 호텔도착 (054)745-7000	경주조선호텔
10/17 (木)	08:30 09:00~12:00 12:10~13:10 13:20~17:45 18:00	조식 호텔출발 석굴암, 불국사, 나자렛요양원 중식(물방아삼계탕) 감포코스(기림사, 감은사지, 문무대왕릉) 호텔도착 석식 (조선호텔)	
10/18 (金)	08:30 13:00~14:00 15:00 18:00	조식 이동 (경주→해인사) 해인사 중식(홍도식당) 이동 (해인사→부산) 호텔도착 석식 (메리어트호텔)	부산 메리어트호텔 (051)743-1234
10/19 (土)		부산자유연수 (태종대→자갈치시장→광복동→해운대)	
10/20 (日)	09:00 12:00~13:00 13:30~15:00 15:00~16:30 17:00	조식 이동 (부산→안동) 중식 (옥류정) 하회마을 안동하회별신굿 이동 (안동→서울)	*석식:자유식
10/21 (月)	13:00~15:00 15:00~16:30 17:00~17:30 18:00	자유시간 자체토론회 평가회 수료식 환송만찬회	수련(호암관 별관)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주최
10/22 (火)	출국		

▶ 제공서비스 안내 I

일본학술정보센터 전자도서관 서비스 (NACSIS-ELS)

National Center for Science Information Systems Electronic Library Service

NACSIS-IR을 통해 목록을 검색하여도, 본문을 구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학술잡지이용이 편리해졌다. NACSIS-ELS는 국립정보학연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일본의 학술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잡지의 논문(원문)을 잡지명/저자명/논문명/키워드 등으로 검색하여 인쇄할 수 있다. NACSIS-ELS 이용은

본 센터를 방문하면 직접 검색할 수 있으며, 전화 및 E-mail 등으로 문의하면 본 센터에서 검색하여 자료를 송부한다. NACSIS-ELS 수록 잡지 분야별(인문 과학/법학/경제학) 일람은 아래와 같다. (최근갱신: 2003. 2. 18)

▶ 人文科學

學會名	雜誌名	收錄範圍
イタリア學會	イタリア學會誌 ダンテ學會誌	2號(1952)~51號(1999) 1號(1951)
英米文化學會 www.threeweb.ad.jp/~shakey23/indexj.html	英米文化 現代英米研究 現代英米文化	21號(1991)~32號(2002) 1號(1969)~13號(1982) 14號(1983)~20號(1990)
オーストリア文學研究會	オーストリア文學	1號(1985)~18號(2002)
國語文學 www.soc.nii.ac.jp/jpling/index.html	國語學	V51.N1(2000)~V52.N4(2001)
史學會 www.soc.nii.ac.jp/hsj/index.html	史學雜誌 史學雜誌(回顧と展望) 「史學雜誌」の每巻5號	85編(1976)~111編(2002) 85編(1976)~
心理科學研究會 www.soc.nii.ac.jp/jraps/index.html	心理科學	1巻1號(1977)~22巻2號(2001)
スポーツ史學會 www.soc.nii.ac.jp/jssh/index.htm	スポーツ史研究	1號(1988)~15號(2002)
全國大學國語教育學會 www.soc.nii.ac.jp/nace/index.html	國語科教育 全國大學國語教育學會 發表要旨集	1集(1952)~ 78(1989)~82(1992), 85(1993)~97(1999)
太平洋學會 www.osaka-gu.ac.jp/gakkai/taihei/	太平洋學會誌	21號(1984)~90號(2001)
大學英語教育學會 www.jacet.org/index.html	AILA Congress Book 大學英語教育學會 大學英語教育會紀要(JACET Bulletin)	26集(1987)~37集(1998) 1號(1970)~29號(1998)

學會名	雜誌名	收錄範圍
中國研究所 www.soc.nii.ac.jp/ica/	アジア經濟資料(→繼續「アジア經濟旬報」) アジア經濟旬報(→繼續「季刊中國研究」) 季刊中國研究 中研貿易委員會特報(→繼續「アジア經濟資料」) 中國資料月報 中國研究所所報(→繼續「中國資料月報」) 中國資料月報(→繼續「中國研究月報」)	N.37(1948)–N.52(1949) N.53(1949)–N.52(1949) N.1(1985)–N.27 N.1(1947)–N.36(1948) N.147(1960) N.1(1947)–N.22(1949) N.23(1949)–N.146(1960)
中國中世文學會 www.hakuteisha.co.jp/gakkai/chusei.html	中國中世文學研究	1號(1961)–
東京都立大學哲學會	哲學誌	Vol.38(1996)–
東南アジア史學會 www.soc.nii.ac.jp/jssah/index.html	東南アジア史學會會報	1號(1966)–74號(2001)
東北哲學會 www.sal.tohoku.ac.jp/philosophy/TPS/index-j.html	東北哲學會年報	1號(1985)–18號(2002)
日本インターシップ學會 www.soc.nii.ac.jp/jsi/index.html	日本インターシップ學會講演資料 (→繼續「日本インターシップ學會年報」) 日本インターシップ學會年報	1號(1999)–3號(2001)
日本運動生理學會 seiri.taiiku.tsukuba.ac.jp/~jsesp/index.html	Advances in Exercise and Sports Physiology 日本運動生理學雜誌	V1.N1(1994)–V8.N1(2002) 1卷1號(1994)–9卷1號(2002)
日本家庭科教育學會 www.soc.nii.ac.jp/jjhee/index.html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35卷(1992)–44卷1號(2001)
日本教育學會 www.soc.nii.ac.jp/jsse4/index-j.html	教育學研究 日本教育學會大會シンポジウム・ 課題研究發表要旨集録	64卷(1997)–69卷3號(2002) 12回(1953)–59回(2000)
日本教育社會學會 www.soc.nii.ac.jp/jses2/index.html	教育社會學研究	1號(1951)–69號(2001)
日本教育心理學會 www.soc.nii.ac.jp/jaep/index.html	教育心理學研究 教育心理學年報 日本教育心理學會總會發表論文集	1卷(1953)–50卷 3號(2002) 1集(1961)–41集(2001) 7集(1965), 16集(1974), 33集(1991)–43集(2001)
日本教育情報學會 www.soc.nii.ac.jp/jsei/index.html	教育情報研究 日本教育情報學會年會論文集	1卷(1985)–18卷 1號(2002) 5回(1989)–16回(2000)
日本計量史學會 www.bekkoame.ne.jp/~hirotkmt/sub_web/m_sociej.htm	計量史研究	1卷 1號(1979)–24卷 1號(2002)
日本行動計量學會 www.soc.nii.ac.jp/bsj/index.html	Behaviormetrika 行動計量學 日本行動計量學會發表論文抄録集	27卷 2號(2000)–29卷 2號(2002) 27卷 2號(2000), 28卷 2號(2001)
日本行動分析學會 www.behavior.nime.ac.jp/~behavior/index.html	行動分析學研究 日本行動分析學會年次大會プログラム・發表論文集	12卷1・2號(1998)–16卷2號(2002) 17(1999)–19(2001)
日本社會心理學會 www.soc.nii.ac.jp/jssp/index.html	社會心理學研究	

學會名	雑誌名	収録範囲
日本スラヴ・東歐學會	Japanese Slavic and East European Studies	V1(1980)~V21(2001)
日本性格心理學會 wwwsoc.nii.ac.jp/jspp/index.html	性格心理學研究 日本性格心理學會大會發表論文集	1巻(1993)~11巻1號(2002) 1回(1993)~9回(2000)
日本青年心理學會 wwwsoc.nii.ac.jp/jsyp/index.html	青年心理學研究 日本青年心理學會大會發表論文集	1號(1987)~13號(2002) 1回(1993)~8回(2000)
日本生命倫理學會 wwwsoc.nii.ac.jp/jab2/index.html	生命倫理	V5.N1(1995)~V9.N1(1999)
日本體育學會 wwwsoc.nii.ac.jp/jspe3/index.htm	體育學研究 日本體育學會大會號	1巻1號(1951)~46巻2號(2002) 22回(1971)~34回(1983), 40回(1989)~52回(2001)
日本超心理學會 wwwsoc.nii.ac.jp/jspp2/index.html	超心理學研究	創刊準備號, 2巻2號(1997)~6巻1號(2001)
日本圖書館情報學會(日本圖書館學會) wwwsoc.nii.ac.jp/jslis/index.html	圖書館學會年報 日本圖書館情報學會誌	43巻(1997)~48巻1號(2002) 45巻1號(1999)~48巻3號(2002)
日本動物心理學會 wwwsoc.nii.ac.jp/jsap2/index.html	動物心理學研究	40巻1號(1990)~51巻2號(2001)
日本獨文學會 wwwsoc.nii.ac.jp/jgg/index.html	ドイツ文學	97號(1996)~108號(2002)
日本ニュージーランド學會	日本ニュージーランド學會誌	1巻(1995)~6巻(2000)
日本犯罪社會學會 wwwsoc.nii.ac.jp/jasc/index.html	犯罪社會學研究	1號(1976)~26號(2001)
日本バイオフィードバック學會 wwwsoc.nii.ac.jp/bf/	Current Biofeedback Research in Japan バイオフィードバック研究	1992~1996
日本フランス語フランス文學會 wwwsoc.nii.ac.jp/sjllf/index.html	Studes de Langue et Litterature Francaises = フランス語フランス文學研究	1號(1962)~80號(2002)
日本ブーシキン學會	日本ブーシキン學會會報	1(1988)~30(1998)
日本保育學會 wwwsoc.nii.ac.jp/jsrec/index.html	日本保育學會大會研究論文集	18回(1965)~32回(1979), 47回(1994)~54回(2001)
日本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學會 wwwsoc.nii.ac.jp/mscom/	新聞學評論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1號(1952)~41號(1952) 42號(1993)~61號(2002)
日本民族學會 wwwsoc.nii.ac.jp/mscom/	Japanese Revier of Cultural Anthropology 民族學研究	
日本ロシア文學會 www.geocities.co.jp/Berkeley/1632/index.html	ロシア語ロシア文學研究	1號(1969)~33號(2001)
パーリ學佛教文化學會	パーリ學佛教文化學	創刊號(1988)~14號(2000)
美術科教育學會 wwwsoc.nii.ac.jp/aea/Home.html	大學美術教科教育研究會報告 美術教育學	1號(1979)~4號(1982) 5號(1983)~23號(2002)

學會名	雜誌名	收錄範圍
文學教育研究者集團 homepage2.nifty.com/bunkkyoken/index.htm	文學と教育	123號(1983)–195號(2002)
ロシア史研究會 wwwsoc.nii.ac.jp/jssrh/index.html	ロシア史研究	1卷1號(1960)–70號(2001)

▶ 法學

學會名	雜誌名	收錄範圍
研究・技術計畫學會 wwwsoc.nii.ac.jp/jssprm/index.html	研究・技術計畫學會年次學術大會講演要旨集 研究技術計畫	1卷(1986)–16卷(2001) 1卷1號(1986)–15卷2號(2002)
日本法政學會 wwwsoc.nii.ac.jp/jalps/index.html	日本法制學會法政論叢	8卷(1971)–38卷2號(2002)

▶ 經濟學

學會名	雜誌名	收錄範圍
オフィス・オートメーション學會 wwwsoc.nii.ac.jp/oa/office.html	オフィス・オートメーション 本情報系	1卷(1986)–16卷(2001) 1卷1號(1986)–15卷2號(2002)
日本法政學會 wwwsoc.nii.ac.jp/rmsj/index.html	日本法制學會法政論叢	8卷(1971)–38卷2號(2002)
記録管理學會 www.jasmin.jp	レコード・マネジメント	34號(1997)–41號(2000)
經營情報學會 wwwsoc.nii.ac.jp/jaeg/index.html	經營情報學會誌	
經濟地理學會 jasess.u-shizuoka-ken.ac.jp/index.html	經濟地理學年報	1卷(1955)–48卷3號(2002)
社會・經濟システム學會 www.waseda.ac.jp/sseh/index.html	社會・經濟システム	創刊號(1983)–18號(1999)
社會經濟史學會 wwwsoc.nii.ac.jp/jshe2/index.html	社會經濟史學	1卷1號(1931)–65卷6號(2000)
生活經濟學會	生活經濟學研究	
日本經營教育學會	經營教育研究 日本經營教育學會全國研究大會研究報告集, 報告要旨, 報告要旨集	26(1992)–44(2001)
日本經濟學會連合	Bulletin of the Union of National Economic Associations in Japan	N1(1981)–N20(2000)
日本社會情報學會 wwwsoc.nii.ac.jp/jasi/index.html	日本社會情報學會誌 日本都市情報學會誌	V13.N1(2001)–V13.N2(2001)

學會名	雜誌名	收錄範圍
日本統計學會 www.jss.gr.jp/index.html	Journal of The Japan Statistical Society (各卷1・2號) 日本統計學會誌	29卷1號(1999)~32卷1號(2002) 29卷3號(1999)~31卷3號(2001)
比較都市史研究會	比較都市史研究	20卷1~2號(2001)
プロジェクトマネジメント學會 jasprom.pm.it-chiba.ac.jp/index.htm	プロジェクトマネジメント學會研究發表大會豫稿集 プロジェクトマネジメント學會誌	1999(秋期)~2001(春期) 1卷1號(1999)~4卷4號(2002)

●문의

일본자료센터 TEL (02)880-8503

FAX (02)874-3689

E-Mail miyabi@snu.ac.kr

Homepage <http://sias.snu.ac.kr/japan>